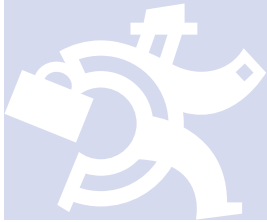


15



상황별 사례

학습목표

- 치매 대상자 사례를 중심으로 장기요양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 원칙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준과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1절 일상생활 돌봄

1. 실기항목 및 과제, 작성 예시

【실기항목】

1. 주어진 예시사례를 이용하여 해당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돌봄 방법에 대해 사례토의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2. 주어진 치매 대상자 사례에 대해 이해한다.
3. 주어진 치매 대상자의 사례에 맞는 일상생활 돌봄 방법에 대해 2인 1조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 1) 주어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사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정도를 파악한다.
 - 2) 사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정도에 따른 적합한 돌봄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 어떤 부분을 보조하고 어떤 부분은 치매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 3) 사례 치매 대상자의 경우와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비교하여 일상생활 돌봄 방법 및 개선점에 대해 논의해 본다.
4. 논의한 내용을 발표한다.

【과제】

1.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사례토의 보고서 (예시사례 1개, 실습사례 3개)

[작성예시]

사례 : 수저를 사용하여 음식 먹기와 컵으로 물 마시기

- 사례토의 보고서 -

1. 주어진 예시사례를 이용하여 해당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의 특성과 요구에 대해 사례토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2. 주어진 예시사례 속 치매 대상자에게 적절한 돌봄 목표와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작성하는 법을 익히도록 한다.

예시사례
치매 대상자인 80세 여성은 식사를 할 때 한 가지 반찬만 주로 먹으며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려고 한다. 영양보호사가 수저로 먹으라고 하면 알았다고 한 후 몇 번 서툴게 수저로 먹지만 금방 다시 손으로 음식을 집는다. 식사 후 물을 컵에 따라주면 손으로 잡아 입에 대긴 하지만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대부분 흘린다. 영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컵을 테이블에 놓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

위의 사례를 읽고 치매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과 도움이 필요한 행동을 구분해 본다.

	1)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2)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해야 수행한다.	3) 누군가의 보조가 있어야 수행한다.
손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입안에 넣는다.		○ 영양보호사의 설명이 있으면 서툴지만 수저로 음식 먹기를 시도한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입안에 넣는다.		○ 영양보호사의 설명이 있으면 서툴지만 수저로 음식 먹기를 시도한다.	

	1)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2)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해야 수행한다.	3) 누군가의 보조가 있어야 수행한다.
손으로 컵을 쥐고 입까지 들어 올린다.			○ 보조자의 말이나 몸짓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물을 따라 주어야 물 컵을 들어 올릴 수 있다.
물이 입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컵을 기울인다.			○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물을 마시지만 대부분 흘리고 먹는다.
컵을 탁자 위에 놓는다.			○ 스스로 컵을 테이블 위에 놓지 못하고 떨어뜨린다.

주어진 사례를 통해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정도와 이에 대한 돌봄 방법, 그리고 본인의 돌봄 경험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 후 다음 예시와 같이 사례보고서를 작성한다.

돌봄이 필요한 정도	1) 치매 대상자가 도움 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치매 대상자는 수저를 이용하여 음식을 먹는 것은 서툴지만 스스로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서 씹고 삼키는 것을 할 수 있다. 2) 치매 대상자가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을 받으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치매 대상자는 주로 손으로 음식을 먹지만 요양보호사의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을 받으면 수저로 먹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3) 누군가 보조해 주어야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치매 대상자가 탈수에 빠지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지 요양보호사의 면밀한 관찰과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적합한 돌봄 방법	위 사례를 보면 치매 대상자는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는 있으나 수저를 이용해서 먹는 것은 서툴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씹고 삼키는 능력은 아직 남아 있음을 파악하고 이 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저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저 사용을 유도하는 방법은 “어르신, 수저로 드셔야지요.” 하고 말로 유도한다. 말을 해도 손으로 먹으려 할 때는 수저를 손에 쥐어 “수저로 드셔야지요.”하고 몸짓과 함께 부드럽게 말한다. 수저로 떠먹지 않을 때는 수저를 잡은 치매 대상자의 손을 요양보호사의 손으로 감싸고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몇 번 수저질을 같이 해주고 혼자 할 수 있도록 말과 몸짓으로 격려한다. 위 사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적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에게 물이 필요한지 관찰하고 치매 대상자가 언제 물을 마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치매 대상자가 탈수되기 전에 물을 마실 것을 권하고 물을 마시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치매 대상자는 컵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서툴고 물도 많이 흘리지만 처음부터 컵 사용을 제한하거나 빨래를 꽂아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되고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례와 비슷한 경험	치매 대상자들이 식사 시간 이외에 물을 마시거나 물을 달라고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물을 조금 마시는 것이 화장실에 자주 가지 않으니까 치매 대상자도 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협회 교육에서 치매가 있던 하루에 1,500CC 이상의 물을 마셔야하고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요실금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육을 받은 후에 치매 대상자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물을 주고 있다. 일부 치매 대상자는 물을 주면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컵을 주면 물을 흘리거나 마시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는 대상자도 있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요양보호사의 아이디어로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대상자들을 만나는 시간 중에 티타임을 갖기로 했다. 아침 11시 정도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유자차나 생강차 또는 구수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준비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게 되었다. 생각보다 치매 대상자도 좋아하시고 따뜻한 보리차를 따른 컵을 손에 쥐어 주니 거부하지 않고 잘 마시는 것을 보았다.
나의 돌봄 기술 및 방법에 있어 개선점	- 수저를 서툴게 잡거나 컵을 잡는 것이 어설퍼서 깔개 걱정되는 치매 대상자는 음식을 먹이거나 물을 먹여주곤 했는데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이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스스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 치매 대상자가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2. 사례

가. 세수하기/양치하기

- 사례토의 보고서 -

예시사례

치매로 진단받은 73세 남성 B씨는 씻지 않고 지낸지 일주일 가까이 되어간다. 가족들이 설득을 하고 억지로 씻기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결국 딸이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씻을 준비를 했다.

요양보호사가 B씨의 목에 수건을 둘러준 후 물로 얼굴을 씻는 시늉을 보이자 B씨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받고 얼굴에 물을 적셔서 몇 번 세수를 하였다. 비누칠도 하라는 딸의 지시에 따라 B씨는 얼굴에 비누를 조금 칠한 후 스스로 물로 헹궈내기도 했다.

요양보호사가 목에 있는 수건으로 가리키며 닦으라고 하자 얼굴의 물기를 닦아내는 것도 가능했다. 그리고는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치매 대상자의 손에 쥐어주자, 칫솔을 입안에 넣고 문지르고 물로 입안을 헹구기도 하였다. 칭찬을 한 후 요양보호사가 칫솔을 헹구고 B씨에게 칫솔을 제자리에 놓도록 유도하였으나 B씨는 세면대에 아무렇게나 던져 버리고 욕실을 나가버렸다.

위의 사례를 읽고 치매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과 도움이 필요한 행동을 구분해 본다.

	1)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2)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해야 수행한다.	3) 누군가의 보조가 있어야 수행한다.
수도꼭지를 돌려 물을 튼다.			
얼굴에 물을 적셔 씻는다.			
비누를 집는다.			
비누 거품을 만들어 얼굴에 문지른다.			
물로 얼굴을 행군다.			
수건으로 얼굴의 물기를 닦는다.			
수건을 제자리에 둔다.			
칫솔과 치약을 확인한다.			
치약 뚜껑을 열어 치약을 짬다.			
치약을 칫솔에 묻힌다.			
칫솔을 입안으로 가져간다.			
윗니, 아랫니를 닦는다.			
물로 입을 행군다.			
물로 칫솔을 행군다.			
칫솔을 제자리에 둔다.			

주어진 사례를 통해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정도와 이에 대한 돌봄 방법, 그리고 본인의 돌봄 경험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 후 다음 예시와 같이 사례보고서를 작성한다.

돌봄이 필요한 정도	1) 치매 대상자가 도움 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 치매 대상자가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받으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누군가 보조해 주어야 치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적합한 돌봄 방법	
사례와 비슷한 경험	
나의 돌봄 기술 및 방법에 있어 개선점	

나. 옷입기

- 사례토의 보고서 -

예시사례

10년 전 중풍을 앓았던 65세 여성은 오른 팔과 오른 다리가 약간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런 데 얼마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에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설명한 후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먼저 바지를 입기 위해 치매 대상자를 일어나게 한 후 휘청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지지해 주었다.

바지를 잡게 했으나 계속 바닥에 떨어뜨려서 요양보호사가 바지를 잡아준 후 다리를 넣으라고 하였더니 잘 수행하였다. 다 입은 후 스스로 바지를 올렸지만 지퍼는 잘 올리지 못해 요양보호사가 도와주었다.

셔츠를 입을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셔츠를 잡아주고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팔을 집어넣어 옷을 입었다. 그 후 요양보호사가 옷을 당기고 단추를 채워 주었다.

위의 사례를 읽고 치매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과 도움이 필요한 행동을 구분해 본다.

	1)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2)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해야 수행한다.	3) 누군가의 보조가 있어야 수행한다.
바지 입기			
서서 균형을 잡는다.			
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는다.			
바지에 다리를 넣는다.			
허리까지 당겨 올린다.			
지퍼를 올린다.			
상의 입기			
한 손으로 앞이 트인 셔츠나 블라우스를 잡는다.			
다른 손을 소매에 넣는다.			
셔츠나 블라우스의 다른 쪽을 잡는다.			

다른 팔을 소매에 넣는다.			
소매를 팔까지 당긴다.			
셔츠나 블라우스 양쪽을 가슴 중심으로 당긴다.			
단추를 채운다.			

주어진 사례를 통해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정도와 이에 대한 돌봄 방법, 그리고 본인의 돌봄 경험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 후 다음 예시와 같이 사례보고서를 작성한다.

돌봄이 필요한 정도	1) 치매 대상자가 도움 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 치매 대상자가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받으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누군가 보조해 주어야 치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적합한 돌봄 방법	
사례와 비슷한 경험	
나의 돌봄 기술 및 방법에 있어 개선점	

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소변 보기

- 사례토의 보고서 -

1. 사례를 통해 치매 대상자의 배설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치매 대상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2. 치매 대상자에 대한 도움 정도를 파악하고 돌봄 방법을 익혀 적용할 수 있다.

예시사례

5년 동안 치매를 앓아 온 80세 여성 D씨는 최근 옷에다 소변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다. 최근 며칠사이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 넘어진 적이 있고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부축해서 가야 해서 가족들이 기저귀를 채우려고 하지만 치매 대상자는 거부하고 있다. 어떤 때는 혼자 화장실까지 벽을 짚고 걸어가 문을 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 요양보호사가 문을 열어준다.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의 안전바를 짚고 변기까지 가서 변기에 앉아 혼자 소변은 볼 수 있었고 대변 역시 변기에 앉으면 스스로 대변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가끔은 휴지로 닦지 않거나 닦은 휴지를 아무 데나 버리기도 하였다. 요양보호사가 지도를 해주면 휴지를 변기 속에 버리고 바지를 올리고 안전바를 짚어서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위의 사례를 읽고 치매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과 도움이 필요한 행동을 구분해 본다.

	1)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2)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해야 수행한다.	3) 누군가의 보조가 있어야 수행한다.
화장실로 걸어간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변기 쪽으로 걸어간다.			
바지, 속옷을 내린다.			
변기에 앉는다.			
대소변을 본다.			
휴지를 뜯어서 닦는다.			
휴지를 버린다.			
변기에서 일어난다.			
속옷과 겉옷을 올려 정리한다.			
화장실에서 나온다.			

주어진 사례를 통해 치매 대상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정도와 이에 대한 돌봄 방법, 그리고 본인의 돌봄 경험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 후 다음 예시와 같이 사례보고서를 작성한다.

돌봄이 필요한 정도	1) 치매 대상자가 도움 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 치매 대상자가 말이나 몸짓으로 설명받으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 누군가 보조해 주어야 치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적합한 돌봄 방법	
사례와 비슷한 경험	
나의 돌봄 기술 및 방법에 있어 개선점	